전국장애인체전도 '하림'과 함께해요

닭고기 시식 · 선물세트 증정 · 응원전 등 다양한 행사

최근 폐막된 제99회 전국체전(12일~18일)에서 닭고기 제품 시식행사로 인기를 모았던 하림 홍보판매관이 또 다시 선보인다.

㈜하림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익산시를 비롯해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기업 홍보판매관을 열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시식을 비롯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실제로 ㈜하림은 전국체육대회 기간인 일주일 동안 대표제품인 용가리 치킨을 비롯해 치킨너겟, 골든 후라이드 닭날개 등 닭고기 제품 200만원 정도의 시식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하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도 13일과 14일 주말 동안 익산공설운동장을 찾아 관람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맛과 즐거움을 선사해 많은 인기를 받았다.

푸드트럭은 ㈜하림의 대표 간편식 제품인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을 직접 조리해 무료로 제공하고 시식 현장에서 개인 SNS계정에 행사 사진 등을 업로드 한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동안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은 받은 ㈜하림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참여해 성공개최를 위한 응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에 ㈜하림은 홍보판매관 운영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닭고기 제품을 시식 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초정자 1,800명에게 ㈜하림에서 준비한 닭고기 선물세트를 지급하고, 도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단도 구성해 시합 일정에 맞춰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열띤 응원전도 준비하고 있다.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지난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도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가 되었다"며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인 스포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향토기업 하림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농협, 수확철 맞아 본격적인 농촌일손돕기

전북농협은 22일 전북농협 조인갑 부본부장을 비롯, (농촌지원단, 상호금융지원단, 무주군지부, 구천동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과 주산지인 무주군 무풍면 사과 농가 찾아 사과 수확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11월말까지 (농협 임직원, 육성단체회원, 각 시군지부 지역농협 임직원) 함께 수확기에 일손 부족한 농촌을 찾아 집중적으로 일손 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각 기관, 단체들도 농촌일손돕기 지원봉사에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경영전략회의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2일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제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했다.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 임원진, 센터장, 전 영업점장, 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3분기 영업점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식과 경영 성과 분석 발표, 본부부서 3분기 실적 리뷰 4분기 전략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북은행 배드민턴 선수단에 대한 포상도 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은행 디지털화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될 것이다"며, "산업구조의 취약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디지털화로 은행의 체질을 바꾸고 영업기반을 확대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다 강한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농협은행, '필리핀 해외송금 이벤트' 실시

수수료 면제 · 기프티콘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필리핀 주요 명절인 '반성절'을 앞두고 다음달 16일까지 5주간 농협은행 영업점을 찾아 'NH-METRO 무계좌해외송금'을 이용, 필리핀으로 해외송금한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31일까지 영업점에서 'NH-METRO 무계좌 해외송금'을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USD환산 송금액($500이하 / $500초과 $1,000이하 / $1,000초과)에 따라 'GS25 모바일 기프티콘(3/5/7천원권)'을 증정, 11월 1일에서 16일까지는 영업점에서 'NH-METRO 무계좌 해외송금'을 이용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 'GS칼텍스&홈플러스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NH-METRO 무계좌 해외송금'은 필리핀 송금 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이름과 송금PIN번호만으로 필리핀 메트로뱅크 960여 전 지점과 7,000여 제휴가맹점에서 송금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로 외국인을 포함, 개인고객 대상으로 제공,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과 '올원뱅크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별, 일별 송금한도는 미달러화 기준 영업점 7,000불, 올원뱅크앱 3,000불, 미달러화(USD) 또는 필리핀페소화(PHP)로 송금할 수 있고 필리핀페소화로 바로 송금 시 고객은 이중 환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올원뱅크앱으로 본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면제, 고객은 더욱 저렴하게 연중무휴 24시간 필리핀으로 송금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남원 흥부제서 우체국 새로운 캐릭터 '제제' 선보여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 열린 '제26회 남원 흥부제'에서 새로운 우체국 캐릭터 '제제'를 선보였다.

우체국 새로운 캐릭터 '제제'는 남원시 일원에서 열리는 향토문화축제 '남원 흥부제'의 상징으로 '은혜 갚는 제비'와 이미지가 유사한 만큼 젊은 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깜찍하게 웃는 모습과 귀여운 모자와 가방을 멘 친숙함으로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주말을 맞아 남원 흥부제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우체국이 증정한 '제제' 열쇠고리와 스티커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는 한편, 편지쓰기 행사에 참여, 우체국 문화를 체험 했다.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흥부전에서 유래한 '남원 흥부제'와 우체국의 새로운 캐릭터인 '제제'가 '은혜 갚는 제비'와 이미지가 유사한 만큼, 많은 홍보를 통해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이 지난 19일부터 3일간 열린 '제26회 남원 흥부제'에서 새로운 우체국 캐릭터 '제제'를 선보였다.

전북은행, '전북도게이트볼대회' 성료

남원운봉팀 우승의 영예 안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9일 전주시 송천동 게이트볼전용구장에서 '제6회 전북은행장기 전라북도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을 활성화하고 도내 게이트볼 동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을 증진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시형 전북은행사회공헌부장, 김원식 전라북도게이트볼협회장을 비롯, 도내 14개 시, 군 42팀 총400여명의 선수, 심판, 임원 등이 참가해 큰 성황을 이뤘다.

오전부터 참가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우승 남원운봉팀, 준우승 전주무궁화팀, 3위 남원향교팀, 진안부귀팀 이외에 장려상 4팀, 감투상 6팀 등 총 1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승을 차지한 남원운봉팀에게는 대회 우승기를 전달, 우승팀의 자부심을 높였고 다른 팀들에게는 내년에 더욱더 향상된 실력으로 동호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노시형 전북은행사회공헌부장은 "완연한 가을 날씨에 어르신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지역유일의 향토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들을 꾸준히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안종범 前수석과 금리 협의한 적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금리인하 압박 의혹과 관련,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론과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시 초문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이 지난 2015년 3월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하고 그해 6월 다시 1.50%로 내릴 당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6월 한은이 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기 직전인 4월과 1년 전 금리인하 단행 전 2015년 5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한은 총재', '양적완화', '한은' 등의 문구가 수차례 적힌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황을 갖고 말하는데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기가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며 "6개월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1%로 낮춰야 하고 물가안정목표가 3%였는데 0%대로 떨어질 만큼 경기가 아주 안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압박을 받아 금리를 조정하도록 금통위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금통위에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고 금통위 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 접촉한 적도 없다. 정부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금통위가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15년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도 "2015년 2월 3월 서별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 장관들이 모였는지는 몰라도 저는 물론 한은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